

자료제공 : 2023. 4. 13.(목)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부서 :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지원과

서울경찰청 한강경찰대

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 : 3쪽

자치경찰지원과장	최낙현	2133-9854
자치경찰재정팀장	김성호	2133-9864
담 당 자	윤경남	2133-9868
한강경찰대장	신창훈	700-2860
수상안전팀장	박철완	700-2864
담 당 자	박정철	700-2863

오세훈 시장, 서울시민의 휴식처 한강을 지키는 진정한 영웅 ‘한강경찰대’ 격려

- 4.13.(목) 서울시청에서 한강경찰대와 자원봉사자 등 11명과 간담회 개최
- 사명감과 희생정신으로 시민안전에 최선을 다하는 대원들과 봉사자들 격려 및 응원자리 마련
- 오 시장, 시민의 생명을 구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대원들과 봉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시민과 대원들의 안전을 위해 적극 지원 약속

- 오세훈 서울시장은 4.13.(목) 12시 서울시청에서 ‘한강경찰대 간담회’를 열고 한강 안전의 최전선에 있는 서울경찰청 한강경찰대 대원과 자원봉사자 등을 격려하고 시민과 대원들의 안전을 위해 노후 장비 교체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.
- 이날 간담회에는 오세훈 서울시장, 서울경찰청 소속 한강경찰대(신창훈 대장) 대원 8명, 자원봉사자 3명 등이 참석했다.

- 간담회에서 오세훈 시장은 “과거 철인3종 경기와 스쿠버도 해봤고, 한강안에 들어가서 쓰레기도 건져 올리는 등 실제로 경험을 해봐서 여러분들 근무환경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다”며 한강경찰대와 봉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.
- 특히, 지난 2020. 2. 15. 한강경찰대 대원이었던 고(故) 유재국 경위는 가양대교 인근에서 한강에 투신한 실종자 수색 중 교각 돌 틈에 몸이 끼어 순직하는 등 한강경찰대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헌신적인 임무 수행을 하루에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다.
- 오 시장은, “대원 여러분이 안전해야 시민의 안전도 지킬 수 있음을 명심 해주길 바란다.”면서, 한강을 이용하는 시민과 대원들의 안전을 위해 한강경찰대의 노후화된 순찰정 교체 등 근무환경 개선을 약속했다.
- 한강경찰대는 현재 총 4개 센터(망원·이촌·뚝섬·광나루)를 중심으로 강동대교부터 행주대교까지 41.5km를 관할하고 있다. 총 39명의 정예요원 대원들은 8일에 한 번꼴로 시민의 귀한 생명을 구해냈다. 연간 3,647건(2022년 기준)의 112 사건 신고를 처리하는 등 한강 안전의 최전선에 있다.
 - 한강경찰대는 1986년에 발족하여 한강 내 인명구조와 수색작업, 수상 안전 유지와 범죄예방 단속 등을 하고 있으며, 2021. 7.부터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·감독을 받고 있다.

붙임 : 한강경찰대 간담회 사진

